SNS서 아무리 ‘G20’ 쳐봐도 ‘문재인’ 없~다

28일 오사카 ‘G20’ 직전 버즈 분석
‘트럼프’ 언급, 작년 10위→올 4위
네티즌 시선 트럼프-시진핑에 쏠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주요 각국 정상들은 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속속 회담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미중 무역협상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터뉴스는 G20을 일주일여 앞두고 G20에 대한 누리꾼 반응을 살폈다. 그 결과 지난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2018년 G20을 앞둔 시점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트럼프 美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 언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 우리 네티즌들이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과 대상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간 G20으로 인해 발생한 버즈였고, 분석도구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소셜 메트릭스’를 활용했다.

〈그림 1〉은 조사대상 버즈에서 ‘G20’ 연관어를 추출한 것이다. 상위에 랭크될수록 ‘G20’을 언급한 게시물에 자주 등장한 단어라는 뜻이다. 이를 보면 연관도 1위 키워드는 개최국가인 ‘일본’이었고, 2위와 4위는 각각 ‘미국’과 ‘트럼프’였다. 또 ‘중국’은 5위에 랭크됐고 ‘시진핑’은 11위에 랭크됐다. 9위 연관어는 ‘무역’이었다. 인터넷 게시물에서 미국과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G20과 함께 많이 언급된 것이다. 이는 누리꾼의 이목이 그만큼 미중 무역협상에 집중돼 있으며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키워드 ‘문재인’은 20위에 그쳤다. ‘북한’은 26위였고 ‘김정은’은 38위였다. G20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 예상되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낮은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이 G20 연관어로 오른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을 앞두고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란 예측이 버즈를 탔기 때문이다.

올해 G20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낮은 것은 지난해 버즈 분석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지난 회의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렸다. 회의를 9일 앞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이전 한 달 동안 발생한 G20 버즈에서 당시 누리꾼들의 관심 사안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추출해보면, 키워드 ‘문재인’이 연관도 2위에 올랐다. G20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에 크게 관심이 쏠렸다는 것이다. 〈그림 2〉는 해당 기간 발생한 ‘G20’ 연관어를 추출한 것인데, 키워드 ‘문재인’의 언급량이 2500회로 조사됐다. 올해 같은 기간 ‘문재인’ 언급량은 1500회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당시보다 올해 G20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또 당시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언급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키워드 ‘미국’은 연관도 5위에 올랐으나 ‘트럼프’는 10위에 그쳤다. 키워드 ‘중국’은 9위였다. 당시에도 미중간 무역분쟁이 첨예한 양상이었으나, 누리꾼들의 관심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쏠린 상태였다. 올해는 달랐다. 우리 누리꾼들은 G20을 앞두고 자국 대통령보다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올해 G20 버즈에는 감성어 ‘평화’가 포함돼 있던 것도 지난해와 다르다. 감성 키워드 ‘평화’는 긍정 키워드 순위 5위에 올랐고, 언급량은 180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평화’가 고작 2회 언급된 데 그쳐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는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 대해 이번 G20이 해결의 물꼬를 터주길 바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송원근 기자 arete@bigtanews.co.kr

〈표1〉

순위	키워드	버즈량	순위	키워드	버즈량
1	일본	4082	16	주석	1930
2	미국	3810	17	협상	1912
3	회담	3689	18	도널드트럼프	1737
4	트럼프	3296	19	장관	1695
5	중국	3137	20	문재인	1561
6	오사카	3083	21	국가주석	1534
7	정상회담	2883	22	외교	1423
8	대통령	2831	23	국제	1389
9	무역	2636	24	관세	1349
10	경제	2557	25	가능성	1303
11	시진핑	2466	26	북한	1274
12	한국	2192	27	회의	1238
13	정상회의	2141	28	무역전쟁	1174
14	정부	1983	29	문제	1158
15	g20정상회의	1938	30	입장	1152

〈표2〉

순위	키워드	버즈량	순위	키워드	버즈량
1	대통령	3674	16	일정	1269
2	문재인	2525	17	시진핑	1176
3	아르헨티나	2126	18	국제	1130
4	g20정상회의	1684	19	주석	1051
5	미국	1674	20	정상회의	1030
6	체코	1642	21	부에노스아이레스	1028
7	회담	1622	22	도널드트럼프	1006
8	뉴질랜드	1575	23	국가주석	876
9	중국	1555	24	참석	829
10	트럼프	1465	25	asean	734
11	무역	1416	26	asem	710
12	대변인	1409	27	이명박	704
13	정상회담	1369	28	김용남	698
14	김의겸	1364	29	계획	696
15	경제	1354	30	협상	695

표1. 올해 ‘G20’ 연관도 상위 20개 키워드
표2. 지난해 ‘G20’ 연관도 상위 20개 키워드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TEQUILA 테킬라
Client: VOLKSWAGEN 폭스바겐
Agency: DDB ARGENTINA, Buenos Aires
Product: DRIVE CAREFULLY 안전운전 캠페인

Copy: 0.7% Alcohol
Don't drink and drive
알콜농도 0.7% 의 위험
음주 운전은 안됩니다

수영장 ‘파라다이스’·조식 ‘신라’·야경 ‘롯데’

‘호캉스’ 인스타서 언급 1위
휴가철 7~9월 버즈량 집중

순위	수영장		조식		힐링		야경	
	호텔	버즈량	호텔	버즈량	호텔	버즈량	호텔	버즈량
1	파라다이스시티	3,293	신라호텔	1,288	파라다이스시티	1,066	시그니엘	306
2	신라호텔	2,348	파라다이스시티	669	신라호텔	897	쉐라톤	301
3	네스트호텔	1,795	롯데호텔	668	네스트호텔	625	노보텔	248
4	시티호텔	1,711	노보텔	662	파라다이스호텔	596	신라호텔	203
5	노보텔	1,290	네스트호텔	645	시티호텔	572	그랜드하얏트	189
6	그랜드하얏트	1,174	켄싱턴호텔	625	힐튼호텔	510	센트럴파크	178

호캉스 속성과 호텔별 연관성 비교

빅터뉴스가 소셜메트릭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호캉스’에 대한 인스타그램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호캉스와 가장 연관성 높은 단어는 ‘여행’으로 10만4757건의 버즈량을 기록했다.

키워드 ‘여행’은 전체 연관어에서 22.2%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호텔 ▲휴가 ▲일상 ▲수영장 ▲서울 등이 호캉스와 함께 자주 언급됐다. 특히 호텔의 조건에 해당하는 ▲수영장 ▲조식 ▲야경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누리꾼들이 호캉스 보낼 곳을 살필 때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이 이 세 가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체별 언급량은 트위터 8만3014건, 블로그 3만1799건, 커뮤니티 1만1326건, 인스타그램 47만2541건, 뉴스 1922건으로 총 60만602건이 집계됐다.

최근 1년간 호캉스 관련 가장 많이 언급된 호텔은 신라호텔로 총 2113건의 버즈량을 기록했다. 이어 ▲파라다이스시티호텔 2083건 ▲롯데호텔 1301건 ▲인천 네스트호텔 1275건 ▲그랜드하얏트호텔 1243건 ▲시티호텔 100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이사항으로 전체 언급량 상위 10곳 중 2곳이 인천 소재(네스트호텔, 파라다이스시티)호텔로 나타났다. 인천권 호텔 두 곳이 상위에 있는 것은 주요 고객들이 해외 출국 전 잠시 쉬다 가는 곳으로 많이 찾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취향 따라 호캉스 선택… 호텔별 인기 콘텐츠 달라

호캉스 연관어 중 고유 콘텐츠인 ▲수영장 ▲조식 ▲힐링에 따라 언급량이 차이를 보였다.

먼저 수영장은 파라다이스시티가 3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라호텔 2348건 ▲네스트호텔 1795건 ▲시티호텔 1711건 ▲노보텔 1290건 ▲그랜드하얏트 1174건으로 나타났다.

조식은 ▲신라호텔 1288건 ▲파라다이스시티 669건 ▲롯데호텔 668건 ▲노보텔 662건 ▲네스트호텔 645건 ▲켄싱턴호텔 625건으로 나타났다.

수영장과 달리 조식은 신라호텔이 2위인 파라다이스시티보다 2배가량 높은 언급량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2위 파라다이스부터 6위 켄싱턴호텔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여 신라호텔을 제외한 2~6위의 조식은 비슷한 언급량을 나타냈다.

힐링은 ▲파라다이스시티 1066건 ▲신라호텔 897건 ▲네스트호텔 625건 ▲파라다이스호텔 596건 ▲시티호텔 572건 ▲힐튼호텔 510건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야경은 롯데 시그니엘이 30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차순으로 ▲쉐라톤 301건 ▲노보텔 248건 ▲신라호텔 203건 ▲그랜드하얏트 189건 ▲센트럴파크 178건으로 나타났다.

정연수 기자 xiu0430@bigtanews.co.kr

5만원권 얼마나?

‘신사임당’ 10년… 98조 풀려
20억장 육박해 ‘지폐의 중심’

통계 N 한국은행 발표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5만원권은 98조 3천억원(전체 금액의 84.6%), 19억 7천만장(전체 장수의 36.9%)으로 금액과 장수 모두 은행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발행 후 2년만인 2011년 가장 비중이 높아졌고,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에 비중이 가장 높아져 4개 지폐 중 만원권을 대신해 중심권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 등 3종이던 은행권은 5만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으로 늘면서 경제거래에 필요한 적정한 액면체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OECD 국가들의 은행권 권종은 대체로 4~7종이다.

지폐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의 대폭 감소도 부수적 효과다. 국민들의 현금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5만원권 발행 이후 매년 은행권 제조비용이 1천억원 이내로 안정됐다. 한국은행은 “만원권까지만 만들 경우와 비교하면 은행권 제조비용은 연간 600억원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5만원권 발행은 이전까지 고액현금처럼 사용되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도 대부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2주 정도 유통되다 폐기됐던 자기앞수표의 제조·보관 및 전산처리 등 상당한 비용이 거의 소멸했다는 것이다. 실제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장수는 2008년 9억3천만장에서 2018년 8천만장으로 대폭 축소됐다.

자기앞수표는 수수료 지불, 서명 배서 및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은행권에 비해 위조방지장치도 취약해 위변조에 따른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5만원권이 이런 부작용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실제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기 기자 kaf2002@bigtanews.co.kr